

# ‘코소보’ 놓고 서방-러 대립...나토 평화유지군 700명 증원

### 러시아 “세르비아인 탓하지 말라” 서방 비판 블룸버그 “발칸반도서 EU 야망 흔들린다” 분석

세르비아계 주민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평화유지군(KFOR)의 충돌 사태가 빚어진 발칸반도 코소보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국가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세르비아 편을 들면서 서방 국가들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나토는 코소보에 평화유지군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서방이 기만적인 선전을 중단하고 코소보 사건의 책임과 관련해 절망적인 세르비아인들을 탓하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세르비아인들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평화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르비아에 주재하는 알렉산드르 보찬-하르첸코 러시아 대사는 이날 서방 국가들이 세르비아 정부를 겨냥한 복합

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전했다.

보찬-하르첸코 대사는 최근 세르비아 내 시위와 보스니아의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한 서방의 집단적 복합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방이 부치치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유는 주권을 유지하려는 세르비아의 독립적 정책 때문이라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세르비아의 정책과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나토 평화유지군이 코소보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토는 이날 폭력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코소보 북부에 병력 7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병력이 코소보 시민의 안전을 보



코소보 북부 즈베찬에서 시정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세르비아계 주민들과 이들을 해산시키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평화유지군 병력이 충돌하고 있다. 코소보는 1989년 민족 갈등을 불씨로 피비린내 나는 인종 청소로 이어진 '발칸반도의 화약고'다. /로이터=연합뉴스

장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할 것이라며 코소보 정부와 세르비아계 주민들 모두 추가로 무책임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코소보에는 나토 평화유지군이 약 3천800명 배치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멕시코주 테카맥 한 정육점 앞에서 발생했다.

무장한 한 남성이 정육점 안에서 주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밖

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길가의 개 한 마리를 집어 들고서 옆에 있던 술에 넣었다.

이 사건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멕시코주 테카맥 한 정육점 앞에서 발생했다.

무장한 한 남성이 정육점 안에서 주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밖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늘날 유럽에 너무 많은 폭력사태가 있고 우리는 또다른 분쟁과 관련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동맹국인 세르비아는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와 더욱 밀착 행보를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코소보 정부가 북부에 알바니아계 시장을 무리하게 앉혔다고 비판했다.

코소보는 2차 대전 후 발칸반도 일대를 지배하던 유고연방 안에 있던 세르비아 자치주였지만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유엔 회원국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엔 가입도 불허했다.

지난 4월 코소보 정부 주도로 열린 북부 지방선거에서 코소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가 시장직을 휩쓸자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시장 출구 저지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공화, 바이든 일가 ‘부당거래’ 정조준

### 하원 감독위 “바이든” 단어 들어간 문건 다 내놔라...FBI국장, 거부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한 기밀 문건 제출 요구를 거부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의회 모독 혐의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 공화당 의원은 30일(현지시간) FBI가 비밀 정보원과의 접촉을 기록한 문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레이 국장이 거부했다며 그를 의회 모독 혐의로 기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코머 위원장은 “FBI가 우리가 요청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오늘 알려왔다”며 “이는 의회를 강경하게 만들고 미국인들에게 정보를 숨기려 하는 것으로, 의사 방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코머 위원장은 이날 초 FBI가 2020년 6월부터 비밀 정보원들과 접촉 기록 중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들

어간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코머는 이 문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당시 각종 정책과 관련해 외국인들과의 금품 거래 등 범죄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BI 문건 제출 명령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해외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당시 차남 헨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을 맡으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공화당의 의혹 제기가 대표적이다.

코머 위원장은 지난 10월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차남 헨터 등 바이든 대통령 일가가 중국과 루마니아와 관련된 외국인 등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을 입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FBI는 서한에서 “(비밀 정보

원 접촉을 통한) 정보 기록은 그것이 검증됐거나 신뢰성이 확립됐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다른 정보처럼 무게를 두는 게 아니다”며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 집행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출 거부 이유를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 뉴스에 출연해 “오늘까지 문건이 제출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 모독 혐의를 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원 감독위에서 레이 국장에 대한 기소와 관련한 표결이 가결되면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 해당 의견이 법무부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기소 결정권은 메릭 갈랜드 법무 장관에게 있는 만큼 의회 절차와 무관하게 레이 국장이 기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미 언론의 관측이다. /연합뉴스

## 멕시코서 펄펄 끓는 기름솥에 개 던져...대통령 “용납 안돼”

멕시코에서 기름을 끓이던 솥 속에 개를 집어넣어 죽이는 한 남성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멕시코주 테카맥 한 정육점 앞에서 발생했다.

무장한 한 남성이 정육점 안에서 주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밖

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길가의 개 한 마리를 집어 들고서 옆에 있던 술에 넣었다. 당시 이 솥에는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었다.

격하게 몸부림치던 개는 이내 몇 초 만에 죽었다. 곧바로 뒤따라 나온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가스 밸브를 잠갔지만,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상은 이들 새 트위터에서만 2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삽시간에 공유됐고, 네티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웃뿐만 아니라 동물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라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히틀러가 애인에게 받은 연필, 영국 경매...“1억원 예상”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1889-1945)가 애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연필(사진)이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경매를 앞두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달 6일 경매에 나올 연필은 히틀러와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다가 동반자살 직전 결혼한 에바 브라운(1912-1945년)이 1941년 4월 20일 52세 생일을 맞은 히틀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필 끝에는 아돌프 히틀러의 약자인 ‘AH’가, 측면에는 ‘1941년 4월 20일’이라는 날짜와 이름 ‘에바’가 새겨져 있다.

이 연필의 낙찰 예상가는 5만-8만파운드(8천200만-1억3천만원)다.

에바 브라운은 17세 때 나치 공식 사신사의 조수로 일하면서 히틀러를 처음 만났고, 수년 뒤인 1930년대 초중반부터 히틀러와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히틀러와 브라운은 나치 독일의 패전이 임박한 1945년 4월 28-29일 베를린 지하 병거에서 결혼했고 4월 30일 함께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http://www.jesanara.com)

##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